

# 화순군 '청년 로드' 주거·취업 거점 공간 자리매김

청년 주거·취업 정책 연결축 구축  
청년하우스 월 1만원 1년간 거주  
입주자 33.3% 취·창업 성공 성과

화순군이 회순을 청춘 신작로 일대에 조성한 '청년 로드'가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를 잇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로드는 구직 청년의 주거를 책임지는 화순군 청년하우스와 배움과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청춘들락',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어울림 광장을 연결해 끝은 공간 네트워크로 청년정책의 현장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2024년 12월 개소한 구직 청년 대상 주거 공간으로 주거 안정을 통해 취업 준비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 청년들은 보증금 50만원 월 1만원으로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인실 중심의 주거 공간과 기본 가구, 공동생활 편의 시설을 갖춰 생활 부담을 줄여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총 15명의 청년이 입주해 생활했으며



화순군이 청춘 신작로 일대에 조성한 '청년 로드'가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를 잇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교육 현장. <화순군 제공>

2026년에는 기존 2인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해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된 청년 12명(남성 6명, 여성 6명)이 새롭게 입주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하우스 인근에 위치한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은 주거와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취업 특강과 1:1 면접 멘토링, 면접 복장 대여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창업을 준비

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이 같은 취·창업 지원은 청년하우스 입주 청년들과 연계되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청년하우스 입주자 15명 중 4명이 공공기관 등에 취업했으며 1명은 청년 창업 지원과 연계해 창업에 성공했다.

전체 입주자의 약 33.3%가 취·창업 성과를 거두

며, 주거 지원과 취·창업 지원이 결합된 정책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청년하우스 입주 청년 A씨는 "청년센터에서 멘토링 상담을 받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어울림 광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취업 준비와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잠시 쉬거나 대화를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시작돼 2025년까지 운영된 청년 버스킹은 어울림 광장이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올해부터는 어울림 광장을 중심으로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문화·쉼 공간으로 운영 방향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정책과장은 "청년하우스와 청년센터, 어울림 광장은 각각의 시설이 아닌, 청년의 삶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축이자 유기적인 공간 네트워크"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 일자리 연계와 창업 지원, 문화 향유의 기회가 끊기지 않도록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 ... 12개 읍면 268명

### 주민 주도 담양형 자치 모델 강화

담양군이 제5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담양군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2년간 활동할 주민자치위원들을 공식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제5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주민자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 수여 ▲제5기 출범 퍼포먼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인 서정민 강사가 '농촌형 주민자치, 마을과 읍면 연계를 통한 농촌재생'을 주제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운영 사례

와 실천 방안을 강연했다.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2개 읍면 2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7년 12월 말까지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계획 수립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 발굴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첫 회의가 열렸으며 임원 선출도 함께 했다.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봉 회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지난 22일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가 강진군 신천마을에서 제18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식

22~23일 18개 마을 경로당서

강진군이 여성농민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8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읍 신천마을 외 18개 마을경로당에서 열렸다.

입학식에서는 한글학교 운영 취지 소개와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기방 증정식으로 배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의 소감 나눔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노령의 여성농민 및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

램으로 읽고 쓰는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글을 모르는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를 개교해 연간 1억 6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6명의 전담 교사가 한글, 사적연산, 노래교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성농민 한글학교는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여성농민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평생학습 사업"이라며 "앞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나주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나주시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축제를 발굴 및 지원해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2026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특색 있는 명소와 특산물, 생활 문화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축제를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자원을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 후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지역축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시는 선정된 축제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조성, 관광 코스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장흥 용산농협

어르신 보행보조기 기탁



장흥 용산농협협동조합이 최근 용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보조기(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진>

이번에 기탁된 성인용 보행보조기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일상생활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환 용산농협 조합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관기 용산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맡겨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군,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함평군이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3개사와 근로자 3명을 모집한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중장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0개월간 기업은 월 50만원, 중장년 근로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준은 기업의 경우 함평군에 소재를 두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여 지급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46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 취업 희망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중장년 취업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 세부 내용을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다음 달 13일까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0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중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